

## News

### 내년 은행 가계대출 여력 올해보다 더 축소

데일리안

주요 시중은행,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5%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치를 금감원에 제출... 지난 달 연간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지침 전달  
내년 은행의 대출 문턱 높아질 것으로 예상...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면 KB 4.35%, 신한 4.10%, 하나 3.90%, 우리 3.80%, NH농협 6.90%

### 고승범 "중저신용·정책금융상품 인센티브...총량관리 제외 검토"

연합인포맥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예정 발표  
내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전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탄력적 조정 계획

### '토뱅'의 2% 예금금리 약속, 두 달만에 깨졌다

조선일보

토스뱅크, 내년 1월 5일부터 1억원 초과 통장 예치금 금리를 2%에서 0.1%로 인하... 2% 예금 금리 덕분에 출범 첫날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었지만 금리 체계 변경  
금융당국, "약관에 따라 한 달 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금리 체계 변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 목소리 제기

### "카카오는 하는데 우리도"...대구은행, '캐릭터 상업화' 금융위에 요청

이투데이

DGB대구은행, 금융위원회에 캐릭터 상업화를 위한 부수 업무 허가 신청 공식 요청... 신청한 부수 업무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지식재산유통업  
현 은행법상 규제로 금융회사는 자체 캐릭터를 상업화 불가... 업계는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하는 만큼 빗장 열어줄 것을 기대

### 보험사들, 약관대출 금리 줄줄이 인하...풍선효과 가속화되나

아주경제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 최근 약관대출 금리 인하... 주담대 등 다른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생계형 대출인 약관대출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 당분간 약관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부담을 줄이면서 이자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

### 보험사 3분기 말 대출 262조...석 달 새 2조 ↑

데일리안

금감원, 올해 9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 총 262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 1,000억원 증가  
보험사 대출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0.14%, 0.12%로 전분기대비 하락... 금감원, 대출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계획

### 퇴직연금 불리자"... 증권사로 머니무브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 IRP 부문에서 은행으로부터는 3,147억원, 보험 809억원, 타 증권사 398억원 자금 유입... 총 9,900억원 이상 자금 유입  
개인투자자들의 연금 자산관리 관심 높아지고,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

### 공매도 전면 재개, 가야 될 길... 입장 변화 없어

디지털타임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발표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다만 공매도 재개 금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라든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 언급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